
GKEDC 사업 홍보·초청 및 네트워크 확대 출장 결과보고서

2025. 2. 18. - 2. 22.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KDI 한국개발연구원

1 출장 배경 및 목적

- (배경)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은 기획재정부의 위탁으로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이하 GKEDC)를 운영 중(2024.5.1.~2027.04.30.)이며, 국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협력,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목적) ‘글로벌 지식교류 플랫폼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그니처(signature) 연례행사인 「지식교류의 날(Knowledge Exchange Days, 이하 KED)」을 아시아개발은행(ADB) 사업과 연계 기획하고 GKEDC ▲프로그램 연사 섭외 및 홍보 ▲국제기구와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본 출장을 추진

2 출장개요

- 출장기간: 2025년 2월 18일(화) ~ 22일(토),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출장지: 필리핀 마닐라
- 주요 활동사항
 - (기관소개) GKEDC 기관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소개를 통해 주요 개발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기관 관계자들의 GKEDC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홍보·초청) 마닐라 주재 국제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 유관 부서에 GKEDC 주요 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기조연설 및 세션 발제 등 연사 초청
 - (주요 국제기구와 네트워크 확대) GKEDC의 네트워크 확대 및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주요 국제기구 유관부서와 파트너십 미팅 진행
 - (사례조사) 전시 리노베이션 관련 유관기관 사례조사
- 출장자(총 3인)

#	성명	소속	직함	역할
1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단장	사업책임자
2	선종인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1팀	팀장	사업관리자
3	김예림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2팀	팀장	사업관리자

3

출장일정

출장자별 일정

#	일정	출장자
1	2025년 2월 18일(화) ~ 2월 22일(토)	강동수, 선종인, 김예림

주요 일정

날짜	시간	활동사항 및 면담자	비고
2/18 (화)	이동(한국-필리핀)		
	18:35-21:45	대한민국 인천-필리핀 마닐라 이동	KE0623
	22:00-23:00	공항-호텔 이동	
2/19 (수)	09:00-10:00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국 파트너기금과 면담	
	10:00-11:30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국 지역협력·조정·무역부 (에너지 부문실) 면담	
	11:30-13:15	신탁기금 관계자 간담회	
	13:45-14:45	K-ADB 기후기술허브팀 면담	
2/20 (목)	10:00-11:30	기후사업 중앙조정팀 면담	
	12:30-15:00	경제연구·개발영향국 지역협력·통합과 간담회 및 면담	
	15:15-15:45	기후완화팀 면담	
	16:00-17:00	탄소시장팀 면담	
2/21 (금)	10:00-11:00	디지털 섹터실 면담	
	11:00-11:30	디지털 섹터 수석 전문가 면담	
	12:00-14:00	ADB 이사 간담회	
	14:00-15:00	기후적응팀 면담	
	17:00-18:00	전시관 사례조사(아랄라 박물관)	
2/22 (토)	이동(필리핀-한국)		
	10:00-11:00	호텔-공항 이동	
	12:30-17:25	필리핀 마닐라-대한민국 인천 이동	KE0622

4 기타사항

1 항공편

강동수, 선종인, 김예림

항공편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KE0623	인천	마닐라	2/18(화) 18:35	2/18(화) 21:45
KE0622	마닐라	인천	2/22(토) 12:30	2/22(토) 17:25

2 숙박정보 (필리핀 마닐라)

호텔명	Shangri-la Edsa
주 소	1 Garden Way, Ortigas Center, Mandaluyong, 1550 Metro Manila, Philippines
연락처	+63-2-8633-8888

I. ADB 부서 면담

1.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국 파트너기금과 면담

□ 일 시 : 2025년 2월 19일(수) 9:00-10:00

□ 장 소 : ADB HQ 6B623

□ ADB 측 참석자 (총 2인)

- 오기남 수석파이낸싱 파트너십전문가, 이순재 재정·파트너십전문가

□ 주요 내용

○ (부서공식명칭)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국(Climo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CCSD) 파트너기금부(Partner Funds Division)

○ (국제금융 및 환율 동향)

-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정성이 국가 경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 한국 경제는 다양한 산업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반도체, AI, 자율주행, 배터리 등 다방면에 걸쳐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특정 산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에서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함.
- 다만, 글로벌 시장 내 협업이 필요한 분야가 많음. 한국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기보다는, 정부 및 기관 차원에서 지원 필요
-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 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할 필요성 언급하고, 외국 기업들과 협력 시, 한국 내 기업 및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율할 필요 있음.

○ (국제기구 내 한국 영향력)

- 한국 인력의 국제기구 내 고위직 진출 부족 문제 지적됨. 일본은 국제기구 내 국장급, 사무총장급 인사를 배출하는 사례 다수 있음. 이에 한국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국제기구 내 한국 인력 확대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 필요함. 일본은 특정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향력 강화하고 있음.
- **(GKEDC 연수 프로그램) WB 및 ADB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 안내**
 - 최근 국제 사회에서 한국 경제발전 사례보다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에 대한 관심 증가했음. 따라서 기존의 한국 경제 발전 경험 공유에서 벗어나, 최신 글로벌 이슈 반영한 교육 과정 필요
 - 1주일 연수 프로그램: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개요 강의(Day1),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산업별 사례 연구, 기업 방문 등 포함(Day2~4),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액션 플랜 작성 및 발표(Day5)
- **(기업 및 공공기관 협력 방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GKEDC 프로그램 내 기업 협력 기회 제공 고려
 - 개별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신뢰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많아, 정부 및 공공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ADB나 WB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을 제안
- **(스카우스 프로그램 협력 방안)**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울대 국제대학원, KDI 스쿨과 협력하여 20명 규모로 운영 예정이며,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학기 시작 전인 2월 또는 8월 진행 제안
 - 한국 경제 발전 과정 및 주요 사례 교육, 국제기구 협력 및 정책 운영 사례 강의, 기업 및 공공기관 협력 사례 분석, 경제 발전 관련 현장 방문 및 연구 진행 등을 포함. 경제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 교육 병행
- **(ADB 프로젝트 연계 협력 방안)**
 - 한국 공기업 및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실무 교육 강화하여 연수 후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기획
 - 현재도 만나질 강의 및 투어 형태로는 많이 방문하고 있어, ADB와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KOTRA, LH 등 타 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운영 방안 논의

2.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국 지역협력·조정·무역부 및 관련 프로젝트 관계자(에너지 부문실) 면담

□ 일 시 : 2025년 2월 19일(수) 10:00-11:30

□ 장 소 : ADB HQ 6D127

□ ADB 측 참석자 (총 7명)

- (기후변화지속가능개발국 지역협력·조정·무역부) 정광조 선임지역협력 전문가, Anthony Morada Baluga TA ASCEND 프로젝트 관리자, Aileen H. Pangilinan 선임경제담당관, Maria Anne Lorraine Doong 컨설턴트, Rocky Lee 컨설턴트
- (SG-ENE) Annika Seiler 수석에너지전문가, Eric J. Lam SG-ENE 에너지 전문가

□ 주요 내용

○ (부서 공식 영문 명칭)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국(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CSD) 지역협력·조정·무역부(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nd Trade Division), 에너지 부문실(Energy Sector Office, SG-ENE)

○ ADB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광물 가치사슬 사업 배경

- ADB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이니셔티브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가치사슬에 참여’ 하는 방안을 검토 중
- ADB는 핵심 광물의 재활용 수준이 낮고, 수요 증가 속도가 빠르므로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에너지 안보 및 경제성 확보를 모색하고자 함.
- 6가지 청정에너지 기술 중심의 가치사슬을 검토 중이며,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모색
-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녹색 성장, 일자리 창출, 경제 다각화 기회 등 총체적으로 추진

○ ADB 핵심광물 및 청정 에너지 공급망 구축 사업

- (개요) 아시아 주요 청정에너지 생산 잠재국 및 핵심광물 보유국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개발 기술(CET; Clean Energy Tech) 및 생산시설 보급

- (재원) e-Asia and Knowledge Partnership Fund, EAKPF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기금; 한국 정부 출연)
- (KDI GKEDC 협업 제안 사업(안))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CM; Critical Minerals → 리튬, 니켈, 코발트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산업역량강화 TA사업*

* 2024-2026의 기간으로 추진 중

- (TA 사업 주요 대상국)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4개국이며, 추후 확대 계획
- (진행현황) WTO와 협력중에 있으며 2025년 ADB 연차총회에서 추가 논의 예정.
- (참고사항) 핵심 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프로젝트를 위해 신규로 Regional Financing Facility(RFF)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일본 정부가 2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검토 중

○ ADB측의 KDI GKEDC 협업 요청 사항

- ADB는 KDI GKEDC에 ‘핵심광물 및 청정 에너지 공급망 구축 사업’ 관련 연수를 10월 또는 11월에 추진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KDI GKEDC는 후속 협의를 통해 검토 예정

3. K-ADB 기후기술허브팀 면담

□ 일 시 : 2025년 2월 19일(수) 13:45-14:45

□ 장 소 : ADB HQ 2D611

□ ADB 측 참석자 (총 2명)

- Cai Li K-HUB팀장, Clyde Hutchinson K-HUB팀 기술전문관

□ 주요 내용

○ (부서 공식 영문 명칭)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국(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CSD), 파트너기금과(Partner Funds Division), K-ADB 기후기술허브팀(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Team)

○ ADB Korea Climate Technology Hub (ADB K-HUB) 개요

- (프로젝트명) 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 (담당 부서) 기후 변화 및 지속가능국(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CSD)

- (중점 분야) 식량, 에너지, 물안보, 재난관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빌딩 내 기후기술

○ 2025년 중점 지역

- 2025년도 중점지역은 중앙아시아로 ADB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이니셔티브인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AREC관련 협업 활동을 기획 중

< CAREC 주요 정보 >

- 설립 연도: 2001년

- 회원국: 10개국 (아제르바이잔, 중국,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당초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11개국이나, 2021년부터 ADB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규 지원을 중단

- 투자유치 규모: 510.2억 USD (2001년~2023년)

- 2025년도 의장국: 키르기스스탄

○ ADB측의 KDI GKEDC 협업 요청 사항

- 2025년 11월, ADB는 KDI GKEDC와 서울에서 기술 파트너십 컨퍼런스를 공동 기획 및 운영 할 것을 제안

- ADB는 ‘중앙아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솔루션 사업 제

안 경쟁입찰 프로그램' 을 런칭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KDI GKEDC와의
협업 가능(안) 문의

< 중앙아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솔루션 사업 제안 경쟁입찰 프로그램

주요 정보 >

- 개요: 중앙아의 기후 관련 도전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도전요인에 대한 민간 차원의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공모전
- 참여분야: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현대화, ▲농업 분야의 기후 회복력, ▲폐기물 관리 및 순환 경제, ▲수자원 관리 및 빙하 보호, ▲공급망, 인프라 및 교통의 디지털화
- 참여 대상: ADB 플랫폼 등록 기업

○ 향후 계획

- KDI GKEDC는 ADB가 요청한 기술 파트너십 컨퍼런스 공동 개최의 건 관련하여 협업 가능 여부를 검토 후 회신 예정

4. 기후사업 중앙조정팀 면담

□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10:00-11:30

□ 장 소 : ADB HQ 2D511

□ ADB 측 참석자 (총 3명)

- Esmyra Javier 기후금융전문가, Bianca Gutierrez 기후변화협력관, Dominic Dizon 선임역량개발담당관

□ 주요 내용

○ (부서 공식 영문 명칭)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국(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CSD) 기후변화, 회복력 및 환경 클러스터실 (Climate Change, Resilience, and Environment Cluster, CCRE) 기후사업 중앙조정팀(Central Task Team)

○ ADB 기후사업 중앙조정팀 주요 업무

- 기후사업 중앙조정팀은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연수를 적극 추진 중
- 최근 기후사업 중앙조정팀은 Fletcher 대학교와 협력하여 기후사업 연수 콘텐츠를 개발한 바 있으며, 해당 연수 과정은 보스턴에서 진행
- 기후사업 중앙조정팀은 최근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연수를 기획·추진 중

○ 국제협력 컨퍼런스, 연수 사업 평가 방식/지표 논의

- 기후사업 중앙조정팀은 KDI GKEDC가 개최한 2024년 UNFCCC 포럼 등 컨퍼런스, 연수 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지표에 대해 문의

○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방식 논의

- 기후사업 중앙조정팀은 연수 프로그램에서의 Peer-to-Peer 피드백 및 인터랙티브 러닝 방식 고도화 방법에 대해 논의

○ ADB-KDI GKEDC 협업 가능 분야

- KDI GKEDC 주관의 기후사업 세미나(예: 2024년 UNFCCC 투자포럼 등)에 ADB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 하였으며 ADB측은 향후 유사한 기후사업 포럼·세미나가 개최될 경우, 구체적인 협업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 예정

5. 경제연구·개발영향국 지역협력·통합과 간담회 및 면담

□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12:30-15:00

□ 장 소 : ADB HQ Executive Dining Room & 7B123

□ ADB 측 참석자 (총 2명)

- 강종우 경제연구·개발영향부 지역협력·통합과장, 신인하 전문가

□ 주요 내용

○ (부서 공식 영문 명칭) 경제연구·개발영향국(Economic Research and Development Impact Department, ERDI) 지역협력·통합과(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Division, RCI)

○ (부서 주요 특징) 부서의 주요 어젠다는 지역 협력, 지역 통합이며 이를 위한 FDI, 무역, 금융,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의 업무를 추진

○ (ADB-KDI GKEDC 협업 가능(안)) KDI GKEDC는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연수 추진을 고려중에 있으며 관련하여 ADB 경제연구·개발영향국 지역협력·통합과와 협업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

○ 향후 계획

- KDI GKEDC는 기후변화 연수 기획(안)을 ADB 경제연구·개발영향국 지역협력·통합과에 송부 하여 실질적인 추진 방안 관련하여 세부 협의 예정

6. 기후완화팀 면담

□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15:15-15:45

□ 장 소 : ADB HQ 2D611

□ ADB 측 참석자 (총 6명)

- Elena Antoni 기후변화전문가, Samet Bulut 기후변화전문가, Swati Dsouza 기후변화전문가, Okju Jeong 기후변화전문가, Jai Josol 기후변화담당관, Ghia Rabanal 기후변화담당관

□ 주요 내용

○ (부서 공식 영문 명칭)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국(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CSD) 기후변화, 회복력 및 환경 클러스터실(Climate Change, Resilience, and Environment Cluster, CCRE) 기후완화팀(Mitigation Team)

○ (ADB 기후 변화 부서의 구조) 기후 변화 부서(Climate Change Division)는 다음과 같이 구성

- 기후적응(Adaptation)팀, 기후완화(Mitigation)팀(/저탄소전환팀), 기후금융(Climate Finance)팀, 탄소시장(Carbon Markets)팀 등

○ (기후완화팀의 주요 어젠다) 에너지 및 교통 프로젝트 관련 Just Transition 운영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 및 장기 전략 수립, 녹색 경제 이니셔티브 수립, 전력망 확충 및 탄소 감축 프로젝트 추진 등

○ 기후완화팀의 주요 국제기구/기금 협업 사례 소개

- KDI GKEDC는 KED 컨퍼런스 기획을 위해 기후사업 전반의 내용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중 ADB Climate Fund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주요 기후완화 사례를 문의
- ADB는 ADB 아세안 녹색금융촉진펀드실리티(ACGF): 녹색회복 프로그램(ASEAN Catalytic Green Finance Facility (ACGF): Green Recovery Program)으로 추진 사례 소개

- (예산규모) GCF 기금 및 차관 약 6.3억 불 + ADB 차관 약 40억불

- (사업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 (사업기간) 2022 - 2041

- (지원방식) ▲TA, ▲양허성 차관*, ▲무상 원조, ▲직접 자금 지원

* 양허성 차관의 경우 초기 15년간 캄보디아, 라오스는 0%,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0.5%, 말레이시아는 1% 연간 이자율 적용

- (사업내용) 총 20년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GCF와 ADB의 협력으로 총 약 20개의 하부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

- (하부 프로젝트 예시) Philippines: Davao Public Transport Modernization Project (필리핀 다바오 대중교통 현대화 프로젝트, 감축량 약 340만톤), Cambodia: Blue Carbon Project (캄보디아 블루카본 프로젝트, 감축량 약 160만톤) 등

- **(ADB-KDI GKEDC 협업 가능(안))** KDI GKEDC-ADB는 금번 면담을 통해 향후 KDI GKEDC가 추진하는 기후완화 관련 세미나/연수 추진 시 협업할 수 있도록 후속 회의를 추진키로 협의

7. 탄소시장팀 면담

□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16:00-17:00

□ 장 소 : ADB HQ 2D611

□ ADB 측 참석자 (총 4명)

- Virender Kumar Duggal 수석기후변화전문가 및 탄소시장 프로그램 총괄, Takeshi Miyata 기후변화전문가 (CACF책임자), 이정선 선임운영조정전문가, Amafel Baylon 담당관

□ 주요 내용

○ (부서 공식 영문 명칭)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국(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CSD) 탄소시장팀(Carbon Market Team)

○ ADB 탄소시장 프로그램

- (배경) ADB는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기후 역량 강화를 지원
- (목표) ADB의 탄소시장 프로그램은 ▲저탄소 기술을 지원하는 탄소 금융 제공, ▲국가별 탄소시장 참여 역량 강화, ▲기후 금융 관련 지식 창출 및 역량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함.

○ 주요 이니셔티브

① 일본 공동 크레딧 메커니즘 기금(JFJCM)

- (목적) ADB 지원 프로젝트의 저탄소 기술 도입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보조금)를 제공
- (운영 방식) 일본과 개발도상국 간 양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파리협정 제6.2조에 부합하도록 운영
- (지원 국가) 인도네시아, 몰디브, 방글라데시, 몽골, 팔라우 등 8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지원
- (대상 사업) 메탄 등 고온실효과(GWP)가 높은 온실가스 감축 지원

② 제6조 지원 기구(A6SF)

- (목적) 개발도상국이 국제 탄소시장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역량 개발 지원
- (지원 내용) 파리협정 제6조를 위한 기술적 지원, 정책 조언, 협상 역량

강화

- (재원) ADB 기술협력기금(TASF), 독일 정부, 스웨덴 에너지청이 공여
- (지원 대상 국가) 아르메니아, 부탄, 조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등

③ 기후 행동 촉진 기금(CACF)

- (목표) 탄소 금융을 활용하여 저탄소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배출권 구매 지원
- (운영 기간) 2024년 1월 시작, 2035년 12월 종료 예정
- (주요 활동)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탄소거래 참여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저탄소 기술 확산, ▲역량 강화 및 지식 교류 등

8. 디지털 섹터실 면담

□ 일 시 : 2025년 2월 21일(금) 10:00-11:00

□ 장 소 : ADB HQ 2D611

□ ADB 측 참석자 (총 2명)

- Antonio G. Zaballos 디지털섹터실장, Joseph Kwon 디지털 섹터부 디지털기술전문가

□ 주요 내용

- (KDI GKEDC 소개)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여러 국가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아 KSP와 GKEDC 사업의 차이에 대해 설명
- (ADB 디지털 기술 적용 및 지원 방향)
 - 과거에는 교통, 교육, 공공보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 수행했으나, 2025년 2월부터 역할이 확장되어 독립적인 디지털 지원 부서로 전환됨.
 -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DMCs, Developing Member Countries)을 직접 지원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대출 및 투자(Loans & Investments)를 제공하여 개도국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
 - 단순 기술 지원을 넘어 개도국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이전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며, 타 부문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께 진행
- (주요 지원분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6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
 - 1) 데이터 인프라 개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및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인프라 확대
 - 2) 사이버 보안 및 정책 규제: 개도국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 정보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강화
 - 3) 기술 역량 및 디지털 문해력 향상: 공무원 및 민간 부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실무 교육 지원
 - 4) 공공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구축: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및 공공 서비스 개선

- 5) **AI 및 신기술 적용:** 인공지능(AI), 자동화(Robotics),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적용하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등 기술 기반 프로젝트 개발
- 6) **디지털 가속화 및 혁신 추진:** 디지털 스타트업 지원 및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기술 도입 가속화
- **(센터 내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국가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프로젝트 접근 방식 설정
- 49개 국가 및 6개 핵심 분야의 조합이 매우 광범위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선 프로젝트 기획이 필요하여 우선순위 설정이 당면한 과업
 -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 국가별 현황을 평가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최적의 진입점(Entry Point)을 식별하는 작업 수행 중
 - 나아가, 정책 자문을 넘어 향후 금융 지원과 투자까지 고려하기에 포괄적인 지원 방식 및 실제 투자와 연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DPI 센터 설립 가능성 논의 중
- 한국, 중앙아시아 또는 기타 개발도상국 내 설립 가능성이 제기됨.
 - 스리랑카, 필리핀,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DPI 구축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음.
- **(한국과의 협업)** 한국은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 보유 및 다양한 공공/민간 기업이 포진해 있어 긴밀하게 협업하고자 함.
- 한국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사이버 보안 기업, 데이터 분석 기업,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
 - 특히 DPI 건립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공동 자금조달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ADB 한국 이사와의 면담도 진행했으며 관심 있는 것을 확인함.
- **(GKEDC와의 협업)**
- 섹터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역량강화 연수 필요 시, GKEDC와 컨택하여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

9. 디지털 섹터 수석 전문가 면담

□ 일 시 : 2025년 2월 21일(금) 11:00-11:30

□ 장 소 : ADB HQ 1층 Bo' s Coffee

□ ADB 측 참석자 (총 1명)

- 윤석용 디지털 섹터 수석 전문가

□ 주요 내용

○ (GKEDC와의 협업)

- 기존에 한국방문 프로그램 진행 시 GKEDC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며 굉장히 좋은 방문지라고 생각함. KDI에 추천한 전문가의 강연 및 참석자들과의 토론은 정보의 깊이나 질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함.
-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GKEDC 전시관처럼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 없으며, 특히 짧은 시간 안에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 많이 추천하고 있음. 리노베이션을 할 때,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에 특화된 내용을 다루어 주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 (ADB 사업과 GKEDC 연계)

- ADB는 기존의 범분야(Cross-cutting) 지원에서 디지털 섹터를 신설하며, 직접 차관사업을 추진 중임. 향후 개별 프로젝트의 역량강화 연수에서 GKEDC와의 협업 가능성이 기대되나, 예산은 제한적일 수 있음. 또한 ADB는 이미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경험한 바 있어, GKEDC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고 봄.
- GKEDC를 운영하고 있는 KDI는 타 기관과 달리 하나의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매칭할 수 있는 특징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교류를 지향함.
-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한국 방문의 기회가 있을 때 GKEDC와 다시 한번 워크숍 등을 진행해 볼 예정임. 또한 일주일 연수의 경우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ADB 직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10. ADB 이사 간담회

□ 일 시 : 2025년 2월 21일(금) 12:00-14:00

□ 장 소 : ADB HQ Executive Dining Room

□ ADB 측 참석자 (총 1명)

- 류상민 ADB 이사

□ 주요 내용

○ (기후변화 유관 부서 관련)

- 에너지는 섹터그룹에 속해 있으며 차관(lending)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기후변화는 주제(Themetic)에 속한 팀이며 지식공유, 개도국하고 정책 대화 등을 수행함.

- 일본이 글로벌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10년 이상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 긴밀한 관계 유지 중임. ADB 탄소시장팀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탄소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느낌임.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야 현장에서 반영이 가능함.

○ (디지털 전환 및 역내 협력)

-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역내 협력 모델 정립이 필요한 상황

- 개도국 정부의 디지털화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및 보안 문제 해결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디지털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CCS (Climate Smart Solution)와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효율적인 탄소 감축 방안 모색하는 추세

○ (국제개발금융기관(IFIs)과의 협력)

- 이를 위해, 한국은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을 통해 ADB 및 기타 국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의 국제 기여도는 애매한 수준으로, 더 많은 기여를 통해 발언권 확대 필요가 있음.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기여금 수준이 낮아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기여 수준을 높일지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

- ADB 등에서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한국 기업 및 컨설턴트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필요하며,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사전에 공개하여 한국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일본과의 개발 협력 및 경쟁 관계)

- 일본은 재무성, 행정성, 경제산업성, 금융청 등과 연계하여 개발 금융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직적인 대응이 부족하며,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 및 조직적인 대응 필요
- 일본은 기후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설정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이 탄소 감축 기술에서 국제 표준을 선점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 높음.
- 일본은 국제기구 내 고위급 인력을 다수 배치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한국 인력의 비율은 낮아 영향력이 제한적임. 한국 출신 인력이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기관 차원의 경력 개발 및 지원이 필요

○ (ADB 내 한국신탁기금)

- 2006년 정보통신기술(ICT), 사회발전, 지식공유를 촉진하고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국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성한 e-Asia and Knowledge Partnership Fund (EAKPF)이 있음.
- 한국 신탁기금이라고 해도 예전처럼 구속성을 명시해서 줄 수 없음. 이전에는 단발적으로 사업을 정했었으나, 이제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정해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인력 구성도 공개 경쟁으로 개별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지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움. 현재 한국 직원은 약 100여명 근무 중(ADB는 총 1,500백명 근무)이며, 조금씩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K-Hub는 한국에 사무소를 만들 예정이나 정식 사무소 개념은 아니며 Knowledge Hub 형태로 기획됨. ADBI의 경우는 ADB에서 만들기는 했으나 별도 조직으로 직접적인 재원 지원이 없이 적립금을 통해서 운영 중

11. 기후적응팀 면담

□ 일 시 : 2025년 2월 21일(금) 14:00-15:00

□ 장 소 : ADB HQ 2D611

□ ADB 측 참석자 (총 2명)

- Alessio Giardino 선임기후변화전문가(VC), 강민재 기후변화전문가

□ 주요 내용

○ (부서 공식 영문 명칭)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국(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CSD) 기후변화, 회복력 및 환경 클러스터실(Climate Change, Resilience, and Environment Cluster, CCRE) 기후적응팀(Adaptation Team)

○ 기후적응 사업의 주요 원칙 소개

- 기후적응 사업의 경우 기후 변화 대응에서 단순한 적응을 넘어 “변화를 촉진하는 적응의 개념을 강조
-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인 변화(transformational adaptation)가 필요

○ ADB의 기후적응사업 소개

1. 기후적응 프로젝트의 유형(Typology of Adaptation Projects)

- (Type 1 Adapted Projects) 기존 개발 프로젝트를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형태로 보완한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주요 분야는 수자원, 위생, 교통, 에너지, 교육임.
- (Type 2a Shared Objective of Adaptation & Development) 개발 목적을 가지면서도 기후적응을 고려한 프로젝트로 주요 분야는 보건, 농업, 금융 등으로 구성됨.
- (Type 2b Enabling Adaptation) 기후적응 인프라 개발, 관련 정책 지원 등을 통해 기후적응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로 홍수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

2. 점진적 적응 vs. 전환적 적응 (Incremental vs. Transformational Adaptation) 사업 방식 소개

- (점진적 기후적응 사업 방식) 기존 건물에 기후 친화적 기술을 추가하는 등 기존 시스템에서 미세 조정을 추진하는 형식

- (전환적 기후적응 사업 방식) 해안 도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설계 자체를 바꾸는 사례 등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방식

○ ADB의 기후적응 사업 기획 방식

- 기후적응은 단순한 별개 프로젝트로 진행 되기 보단 개발 자체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구성

○ ADB-KDI GKEDC 협업 가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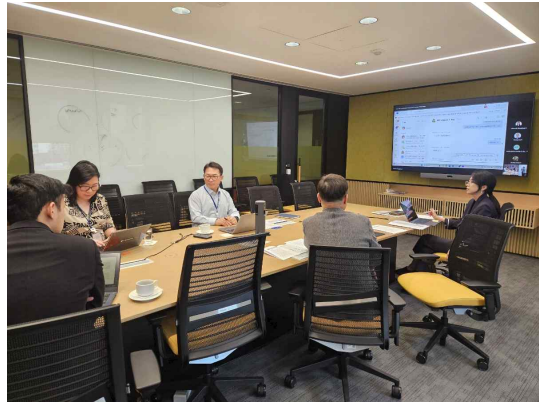
- 기후적응팀에서 자체 기획하는 TA 사업 기획 초반부터 KDI GKEDC-ADB 간 공동기획 할 경우 예산 및 업무범위 등 사전 논의 가능
- 기후적응팀은 현재 개발중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도국 대상의 기후 탄력 인프라 구축 관련 TA에 대한 KDI GKEDC와의 협업 가능 여부를 논의 하였으며 추진 가능 여부 관련 추후 세부 논의 예정

[면담 사진]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국 파트너기금과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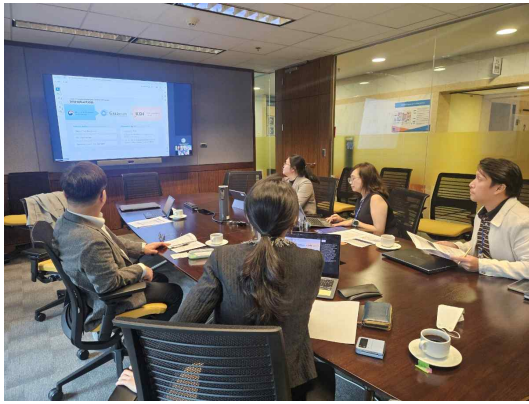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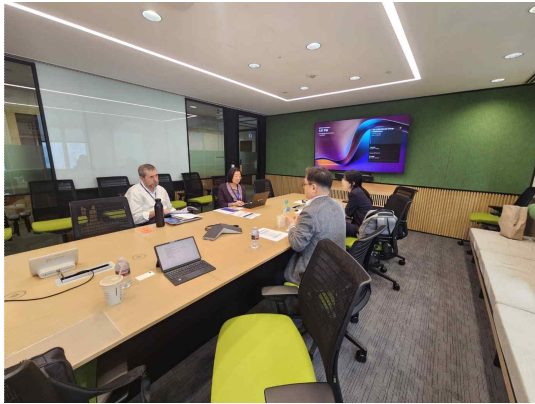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국
지역협력·조정·무역부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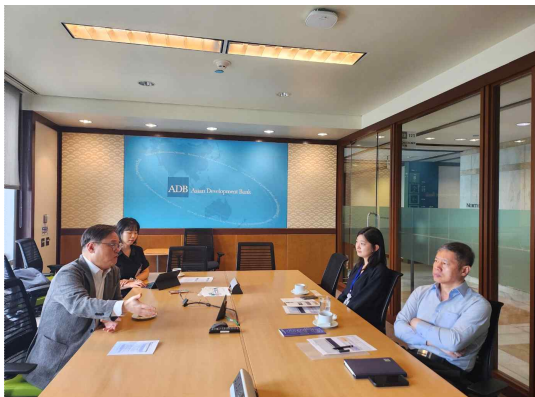
K-HUB팀 면담

기후사업 중앙조정팀 면담



경제연구·개발영향국 지역협력·통합과 면담

기후완화팀 면담



탄소시장팀 면담



디지털 섹터 면담



기후적응팀 면담



II. 전시관 사례조사

[Ayala Museum]

- 일 시 : 2025년 2월 21일(금), 17:00-18:00
- 주 소 : Greenbelt 4, Cambridge Circle Street 1224 Makati National Capital Region
- 주요 내용
 - (박물관 소개) 필리핀 마닐라의 마카티(Makati)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역사·문화 박물관
 - 1967년 아얄라 재단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아얄라 그룹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로, 금융, 부동산, 통신, 에너지 등의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음.
 - 기업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사례로,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필리핀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과 산업 발전을 기록하는 역할 수행
 - (주요 전시)
 - 골드 오브 아워 앤세스터스(Gold of Our Ancestors): 고대 필리핀 사회에서 금이 경제적, 문화적 중심 역할을 했음을 보여줌. 수천 년 전 금 세공 기술 및 무역 시스템을 조명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아랍국가들과 교역을 했던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
 - 디오라마 필리핀 히스토리(Diorama of Philippine History): 필리핀 주요 역사적 순간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며, 단순한 역사적 나열이 아니라 경제적/역사적으로 영향이 컸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술
 - * 16세기 필리핀-스페인 무역: 마닐라 아카풀코 갤리온 무역(Manila-Acapulco Galleon Trade)을 통해 필리핀이 스페인 및 중남미 시장과 연결
 - 19세기 산업 발전: 필리핀이 농업 및 원자재(설탕, 담배 등) 수출을 통해 경제적 변화를 경험
 - 20세기 후반 경제 자유화: 필리핀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외국인 투자 증가
 - 글로브 디지털 갤러리(Globe Digital Gallery):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 방식을 따르고 있음.

대형 스크린 및 터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역사적 자료 및 예술 작품을 탐색할 수 있음.

○ (시사점) 아랄라박물관을 통해 전시관 리노베이션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확인함.

- 역사적 사실을 언급할 때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배경까지 이해하도록 유도
- 필리핀 원주민 사회에서 현대 산업경제로의 전환을 이야기 구조로(Storytelling) 설명하고 있음. 경제적 변화와 정책적 의사결정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구조를 활용해 표현
- 디지털 미디어, VR/AR 등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역사의 일부가 된 듯한 경험을 제공
- 단, 박물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theme)가 부재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개별 전시관이 각각 너무나 다른 주제(도자기, 금, 역사 등)를 다루고 있었음. 이에 신규 전시를 기획할 때는 관람객이 개별 관은 물론 관 사이에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제(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을 고려

[전시관 사진]

글로브 디지털 갤러리



필리핀 초기 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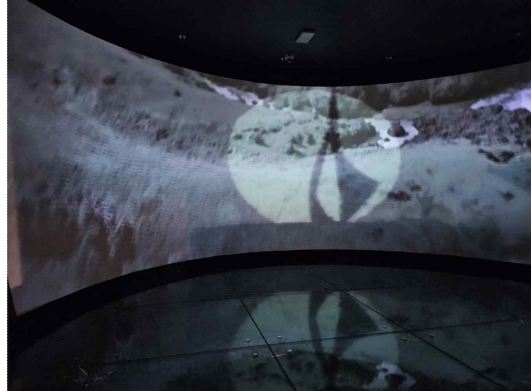
직접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시물



디오라마 필리핀 히스토리



파노라마 영상관



골드 오브 아워 앤세스터스

